

##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에 대한 영재교사들의 인식

김 영 옥

현암고등학교

맹 희 주

단국대학교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 후 최근 10여 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에 대한 영재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수-학습 자료 부족과 지역별 영재아동들의 수준 차이, 학년 및 학교급간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영재교사들은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의 필요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마련되면 중복되었던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고,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으며, 다양한 측면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확보로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의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교급별 영재교육 내용의 중복성과 연계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중복성, 학교급 연계성

### I. 서 론

2000년 1월 28일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2002년 4월 18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제1차와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의해 영재교육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2013년 10월에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신저자:** 맹희주(mhj0805@dankook.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됨.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이 발표되었다(교육부, 2013).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성과분석 결과 영재교육의 양적 확대와 지원 체제 마련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의 질적 관리 체계 미흡과 영재선발의 신뢰도 제고와 선발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선발방식의 필요, 소외계층, 지역에 대한 배려 미흡, 융합형 교육의 미흡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영재교육기관이 과목별 선발 및 과목 심화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식중심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재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창의·융합 프로그램의 개발 저조가 한계점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분리된 교과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로 교육과정 운영과 체계적 국가수준의 영재교육과정 모델의 부재 때문에 통합적, 고차원적 사고력 신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며(교육부, 2013),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영재의 교육과정은 영재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질적으로 다르기(Maker, 1982) 때문에 영재교육의 내용, 과정, 결과 등에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전개해야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성을 지닌 지도교사의 확보, 영재의 특성이 고려된 교수-학습전략 및 필요한 각종 자료의 확보와 개발, 학습자의 성취를 점검하는 평가 계획 등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의 세심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양태연 외, 2013).

그러나 영재의 특성에 맞는 영재성 개발에 대한 고려보다는 교사의 편의에 의해 전문기관에서 기존에 개발된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수업 내용이 구성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한기순, 2006), 이로 인해 프로그램 내용의 획일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 속진교육과 영재교사의 잦은 교체 또한 문제점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이정희, 2011). 이러한 문제점들은 나아가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영재지도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등과 같은 교사 변인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속진교육은 정규교육과정과의 비연계성을 초래하며, 영재교사의 잦은 교체는 프로그램의 중복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국가 수준의 기준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미 1998년 미국의 국립영재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Pre-K Grad 12 Gifted Program Standards)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시하도록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사회-정서적 지도 및 상담, 학생판별, 교육과정과 교수지도,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평가 등 영재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필수조건 혹은 최소 기준에 대한 틀을 마련하였다(교육부, 2013; 김소연, 이신동, 2009; 박후휘, 2014; 이미순, 2009). 또한 영국의 국립영재교육원(NAGTY)은 영재교육국립표준(National Quality Standards in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을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 적절한 교육과정 부여와 선택, 학습평가, 학교 체제,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5개 평가 영역과 14개 평가요소의 기본수준(Entr), 발전수준(Development), 모범수준(Exemplary)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영재교육이 국가인적자원개발 목표에 부합되도록 국가차원의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장 기준 설정’에 대해 제시하였고,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영재교육

지원 체제 정비'의 추진과제에서 세부 실천내용으로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국가차원의 기준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준(standard)이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개발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수행수준(김소연, 이신동 2009논문에서 재인용)으로 왜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는가? 누가 영재교육을 전개할 것인가?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어디서 영재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언제 영재교육을 실시할 것인가? 어떻게 영재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방향(박경빈 외, 2014)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송인섭 외(2001)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재 수업은 영재교육 자료나 프로그램의 원칙이나 방향, 영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영재를 지도하는 강사에 따라 좌우되고 있으며, 또한 자료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 목표에 적합한지 영재아동들의 수준 및 능력과 요구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음을 지적(정문호, 2008)하며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 2008. 2. 29.)에는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법적근거와 영재기관운영과 관련된 필수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김소연, 이신동, 2009). 또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평가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초중등 영재학급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의 지적(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인적자원부, 2007)으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기준 개발의 필요성의 인식으로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초등영재교육의 운영 기준 개발을 주제(이정화, 2008)로 다루거나 미국 국립영재학회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의 교사 실천 사항에 대해 우리나라 교사들의 실천 사항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박후희, 2014)가 수행되어졌을 뿐 초·중·고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고려한 연구는 다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급 전반에 걸친 영재교육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재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영재교사들의 기준 마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 수학, 과학 담당 영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기준을 마련하는데 영재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영재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설문지 개발 및 자료 수집 방법

영재교육에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넓게는 영재교육의 목표,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 영재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영재교육 담당교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운영 시스템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좁게는 교수-학습 자료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프로그램으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단위 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김상미, 2014)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우선 영재교육 3인의 담당교사들로부터 영재교육 프로그램 사용의 문제점과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토론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토론에서 다루어졌던 핵심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주를 설정하고 하위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1인의 영재교육학과 교수와 3인의 초등 영재담당 교사 및 2인의 중등 영재담당 교사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설문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 대상자들의 기초배경(선다형/8문항)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우선순위/1문항),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에 대한 인지(선다형/2문항, 리커트 척도/4문항), 국가표준 프로그램 기준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한 인식(리커트 척도/9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다형, 우선순위, 5점의 리커트 척도 등으로 응답하도록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 내의 영재학급,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등의 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의 직접 방문 또는 e-mail을 통한 발송과 회수를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총 95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발송하여 9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4.7%였다. 그러나, 영재영역별 집단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 집단의 표본수가 작아서 발생할 수 있는 표집오차(sampling error)를 줄이기 위해 예술영재와 정보영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설문지 2부와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설문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2부를 포함하여 총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6부의 설문지에 대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 2. 연구 대상자

응답자들은 과학영재교사(59.3%)가 수학영재교사(40.7%)보다 많았으며, 중학교 영재담당교사(52.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25.6%), 고등학교(22.1%) 순으로 많았다. 또한 응답자들의 연령은 40대(52.3%)가 가장 많았으며, 교직경력은 10년 이상~15년 미만(37.2%), 학사(41.9%)와 석사(37.2%) 학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 지도경력은 30%대로 비슷하였으나 2년 이상~4년 미만(38.4%)이 가장 많았다(<표 1>). 일반교사를 경력에 따라 나누는 기준은 보통은 5년을 기준으로 나누지만, 영재담당 교사는 영재 지도경력이 4년 이상일 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4년이 되는 경우를 영재지도 경력 기준에서 고경력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 지도경력 중 2년 미만을 저경력, 2년 이

상~4년 미만을 중경력, 4년 이상을 고경력으로 구분하여 영재 지도경력에 따른 응답차를 분석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기초배경 명(%)

배경변인	구분	과목		전체
		수학	과학	
성별	남	6(17.1)	11(21.6)	17(19.8)
	여	29(82.9)	40(78.4)	69(80.2)
학교급	초등학교	13(37.1)	9(17.6)	22(25.6)
	중학교	17(48.6)	28(54.9)	45(52.3)
	고등학교	5(14.3)	14(27.5)	19(22.1)
연령	20대	1(2.9)	4(7.8)	5(5.8)
	30대	18(51.4)	16(31.4)	34(39.5)
	40대	16(45.7)	29(56.9)	45(52.3)
	50대 이상		2(3.9)	2(2.3)
교직경력	5년 미만	3(8.6)	8(15.7)	11(12.8)
	5년 이상~10년 미만	8(22.9)	5(9.8)	13(15.1)
	10년 이상~15년 미만	16(45.7)	16(31.4)	32(37.2)
	15년 이상~20년 미만	5(14.3)	13(25.5)	18(20.9)
	20년 이상~25년 미만	3(8.6)	7(13.7)	10(11.6)
	25년 이상		2(3.9)	2(2.3)
최종학위	학사	15(42.9)	21(41.2)	36(41.9)
	석사과정	6(17.1)	10(19.6)	16(18.6)
	석사	13(37.1)	19(37.3)	32(37.2)
	박사과정	1(2.9)	1(2.0)	2(2.3)
영재 지도 경력	2년 미만	12(34.3)	14(27.5)	26(30.2)
	2년 이상~4년 미만	14(40.0)	19(37.3)	33(38.4)
	4년 이상	9(25.7)	18(35.3)	27(31.4)
	전 체	35(100.0)	51(100.0)	86(100.0)

###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의 응답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기초 배경 및 국가표준 영재교육 기준 개발에 대한 인지와 인지 경로 등 선다형 문항에 대해 과목(수학/과학)별, 학교급(초, 중, 고)별, 영재지도 경력(저경력, 중경력, 고경력)별로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을 수행하여 빈도(명)과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카이제곱( $\chi^2$ ) 독립성 검증(chi-Square Independent Test)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결과를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카이제곱( $\chi^2$ ) 독립성 검증 수행 시 5보다 작은 기대빈도의 셀이 20%이상인 문항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문제시 될 수 있으므로 변수값 재조정으로 통계분석을 다시 수행해야 하나 종속변수들

이 명목적도로서 변수값 재조정이 불가능하여 기대빈도의 셀 비율이 높게 나와 결과표에  $\chi^2$ 과 유의미 값( $p$ )을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한 인식 등 Likert 척도로 개발된 문항에 대해 지도과목별 응답평균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 수행하고, 학교급별, 영재지도경력별 응답평균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여 집단간 응답평균( $M$ )과 표준편차( $SD$ )를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같이 우선순위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문항에 대해서는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도과목별 가중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 수행하고, 학교급별, 영재지도경력별 가중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여 집단 간 응답평균( $M$ )과 표준편차( $SD$ )를 함께 제시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기도의 일부지역에서 근무하는 영재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학, 과학 영재교사 모두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별 영재학생들의 수준차이’라고 응답하였다(<표 2>). 또한 그 다음으로 수학 영재교사들은 ‘학년 및 학교급간 프로그램의 중복성’, 과학 영재교사들은 ‘학년 또는 학교급에 맞지 않는 수준의 내용’을 영재교육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 평균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과목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

항 목	과목 $M(SD)$		$t$	$p$
	수 학	과 학		
교수-학습자료 부족	296.7(109.8)	320.5(113.3)	-0.898	0.372
활동 위주의 편중된 프로그램	223.5(97.0)	211.5(103.3)	0.381	0.705
지역별 영재학생 수준 차이	292.9(108.6)	271.0(107.1)	0.779	0.439
학년 · 학교급 간 프로그램 중복	238.5(113.4)	232.3(79.11)	0.235	0.815
학년 · 학교급에 맞지 않는 내용	222.2(87.8)	252.8(105.5)	-1.058	0.295
교사전공분야로 편중된 프로그램	173.3(103.3)	196.9(106.2)	-0.714	0.479

반면 중학교( $M=327.5$ )와 고등학교( $M=325.0$ )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여 가중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년·학교급 간 프로그램 중복’에 대한 응답의 가중치 평균( $M=293.3$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또한 경력과 무관하게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저경력과 고경력의 교사들은 ‘지역별 영재아 수준 차이’, ‘학년 및 학교급 간 프로그램의 중복성’의 순서로 응답의 가중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다음 순위의 큰 문제점으로 중경력의 교사들은 ‘학년 및 학교급에 맞지 않는 내용’, ‘지역별 영재아 수준 차이’의 순서로 가중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학교급 및 경력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

항 목	학교급 $M(SD)$			$F$	$p$	경력 $M(SD)$			$F$	$p$
	초	중	고			저경력	중경력	고경력		
교수-학습 자료부족	261.1 (114.5)	327.5 (101.2)	325.0 (123.8)	2.449	0.090	320.0 (115.2)	310.3 (108.1)	304.0 (117.2)	0.112	0.895
활동 위주의 편중된 프로그램	242.9 (101.6)	229.4 (104.7)	166.7 (77.9)	2.252	0.118	215.4 (106.8)	207.7 (103.8)	223.5 (97.0)	0.089	0.915
지역별 영재학생 수준 차이	266.7 (117.5)	275.0 (113.6)	316.7 (71.8)	0.840	0.437	285.0 (113.7)	266.7 (109.0)	300.0 (100.0)	0.453	0.638
학년·학교급 간 프로그램 중복	293.3 (96.1)	223.1 (90.8)	200.0 (81.7)	4.609*	0.014	229.4 (98.5)	231.8 (99.5)	244.4 (92.2)	0.125	0.882
학년·학교급에 맞지 않는 내용	235.7 (121.6)	234.4 (93.7)	287.5 (83.5)	0.942	0.396	221.1 (78.7)	276.2 (104.4)	221.4 (112.2)	2.005	0.145
교사전공분야로 편중된 프로그램	190.9 (113.6)	173.1 (96.2)	230.0 (116.0)	1.071	0.351	180.0 (113.5)	185.0 (98.8)	200.0 (111.8)	0.140	0.870

\*  $p<0.05$

따라서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학년 및 학교급간 중복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과목별, 학교급, 경력별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 부족과 지역별 영재아동들의 수준 차이를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학과 초등학교 담당 교사들과 저경력과 고경력 교사들은 학년 및 학교급간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다음으로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학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과 중경력자들은 학년 및 학교급에 맞지 않는 영재교육의 교수-학습 내용을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 부족이 세 번째 정도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학교급 영재교사들보다 교수학습 자료 부족의 어려움은 다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소개에 의하면 주로 사고기능이나 창의적 기능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박종원 외, 2000)에 학년 및 학교급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의 선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에 대한 인식

### 가.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에 대한 인지와 인지경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기준 개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냐는 질문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4%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표 4>). 과목별 담당교사 응답에서는 과학 영재교사들(80.4%)이 수학 영재교사들(65.7%)보다 ‘모른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역별 전체 영재 교사들의 비율 중 과학 영재교사들의 비율이 수학 영재교사들의 비율보다 높음을 고려할 때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관심은 수학교사들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세부추진과제로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에 대한 인지 명(%)

항 목	과목		학교급			경력			전체
	수 학	과 학	초	중	고	저경력	중경력	고경력	
알고 있다.	12(34.3)	10(19.6)	4(18.2)	13(28.9)	5(26.3)	4(15.4)	8(24.2)	10(37.0)	22(25.6)
모른다.	23(65.7)	41(80.4)	18(81.8)	32(71.1)	14(73.7)	22(84.6)	25(75.8)	17(63.0)	64(74.4)
전 체	35(100.0)	51(100.0)	22(100.0)	45(100.0)	19(100.0)	26(100.0)	33(100.0)	27(100.0)	86(100.0)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81.8%)은 중학교(71.1%)와 고등학교(73.7%)의 교사들보다 기준 개발에 대한 인지비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경력 교사들(84.6%)이 중경력(75.8%)과 고경력(63.0%)교사들보다 인지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고경력 교사가 다른 집단의 교사들보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에 대한 인지비율(37.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이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연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68.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중매체(13.6%), 학회(9.1%)와 인터넷(9.1%)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세부추진과제로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개발 인지 경로 명(%)

항 목	과목		학교급			경력			전체
	수 학	과 학	초	중	고	저경력	중경력	고경력	
학회		2(20.0)		1(7.7)	1(20.0)		1(12.5)	1(10.0)	2(9.1)
연수	9(75.0)	6(60.0)	4(100)	9(69.2)	2(40.0)	3(75.0)	4(50.0)	8(80.0)	15(68.2)
인터넷	1(8.3)	1(10.0)		2(15.4)			2(25.0)		2(9.1)
대중매체	2(16.7)	1(10.0)		1(7.7)	2(40.0)	1(25.0)	1(12.5)	1(10.0)	3(13.6)
전 체	12(100.0)	10(100.0)	4(100.0)	13(100.0)	5(100.0)	4(100.0)	8(100.0)	10(100.0)	22(100.0)



따라서 영재교사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은 학회에 참여할 기회보다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음을 고려할 때 연수가 단순 강의와 워크숍을 통한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일방향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재교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자료들을 연수장사와 연수기관에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연수장사나 연수기관 또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쌍방향의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나.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의 필요성

한편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이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의 부족’과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고찰 미흡’에 대한 응답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두 항목에 대해 수학 영재교사들과 고경력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이 4.0이상으로 과학 영재교사들과 저경력과 중경력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자료 부족’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응답평균(M=4.17)이 중학교(M=3.84)와 고등학교 교사들 응답평균(M=3.71)보다 다소 높았으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고찰 미흡’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응답평균(M=4.14)이 중학교(M=3.91)와 초등학교 교사들 응답평균(M=3.8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집단 간 응답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심 부족’과 ‘필요성 결여’에 대한 응답평균은 응답 기준평균 3.0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했으며, 특히 ‘필요성 부족’에 대해서는 과학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M=2.93)과 중경력

<표 6> 세부추진과제로써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과목별)

항 목	과목 M(SD)		t	p
	수 학	과 학		
관련 자료 부족	4.09(0.67)	3.80(0.64)	1.664	0.101
관심 부족	3.43(1.16)	3.27(0.92)	0.630	0.531
필요성 결여	3.26(1.14)	2.93(1.03)	1.196	0.236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고찰 미흡	4.00(0.67)	3.90(0.66)	0.561	0.577

<표 7> 세부추진과제로써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 (학교급 및 경력별)

항 목	학교급 M(SD)			F	p	경력 M(SD)			F	p
	초	중	고			저경력	중경력	고경력		
관련 자료 부족	4.17 (0.62)	3.84 (0.63)	3.71 (0.73)	2.220	0.117	3.82 (0.50)	3.88 (0.67)	4.06 (0.83)	0.663	0.519
관심 부족	3.22 (1.00)	3.25 (1.02)	3.64 (1.01)	0.873	0.423	3.32 (0.95)	3.16 (1.07)	3.59 (1.00)	0.911	0.408
필요성 결여	3.00 (1.08)	3.06 (1.01)	3.07 (1.27)	0.023	0.977	3.32 (0.89)	2.96 (1.14)	2.82 (1.19)	1.154	0.322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고찰 미흡	3.83 (0.71)	3.91 (0.64)	4.14 (0.66)	0.925	0.402	3.91 (0.75)	3.84 (0.55)	4.12 (0.70)	0.914	0.406

( $M=2.93$ )와 고경력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 $M=2.82$ )은 응답 기준평균 3.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영재교사들은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부족보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세부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이 세부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 8>과 같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 영재교사( $M=3.90$ )와 고등학교 영재교사( $M=4.26$ ), 저경력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 $M=4.15$ )이 집단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저경력 영재교사들은 중경력( $M=3.70$ )과 고경력 영재교사( $M=3.89$ )들보다 영재교육 관련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기준 마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재교사 연수 교육과정에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영재교육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표 8> 집단별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에 대한 인식

항 목	과목 $M(SD)$				학교급 $M(SD)$					경력 $M(SD)$				
	수학	과학	$t$	$p$	초	중	고	$F$	$p$	저 경력	중 경력	고 경력	$F$	$p$
기준의 필요성	3.89 (0.83)	3.90 (0.96)	-0.081	0.936	3.68 (0.95)	3.84 (0.93)	4.26 (0.73)	2.307	0.106	4.15 (0.88)	3.70 (1.02)	3.89 (0.75)	1.881	0.159

다.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의 기대 효과

영재교사들은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영재교육의 환경적인 측면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목별 영재교사들의 경우 ‘초·중·고의 학교급별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이 해결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평균이 4.0으로 모두 높았으며, ‘중복되었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것이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수학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 $M=4.06$ )이 과학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 $M=3.82$ )보다 높아 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평균이 수학 영재교사들( $M=3.97$ )과 과학 영재교사들( $M=3.84$ )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지적 측면 외에 인성, 진로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보 될 것이다.’와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의 응답평균도 높아 전반적으로 수학 영재교사들의 기대가 과학 영재교사들의 기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항에서 수학, 과

학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과목별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의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항 목	과목 <i>M(SD)</i>		<i>t</i>	<i>p</i>
		수 학	과 학		
환경 측면	영재교육 담당자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다.	3.71(0.52)	3.75(0.77)	-0.206	0.837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3.60(0.88)	3.31(0.97)	1.395	0.167
	선발된 영재학생들의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이뤄질 것이다.	3.37(0.94)	3.37(0.85)	-0.006	0.995
	영재교육 전문기관의 연계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확보될 것이다.	3.86(0.81)	3.78(0.78)	0.418	0.677
내용 측면	초·중·고의 학교급별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이 해결될 것이다.	4.00(0.59)	4.00(0.63)	0.000	1.000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 될 것이다.	3.97(0.86)	3.84(0.86)	0.682	0.497
	인지적 측면 외에 인성, 진로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보 될 것이다.	3.91(0.82)	3.78(0.86)	0.704	0.483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3.91(0.66)	3.82(0.79)	0.558	0.578
	중복되었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것이다.	4.06(0.76)	3.82(0.89)	1.267	0.209

학교급별 영재교사들의 경우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 고등학교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이 다른 학교급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보다 높아 기준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재교육 환경 측면 중 특히 경제적 지원과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평균이 가장 낮아 기준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른 학교급 교사들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영재교사들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 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평균( $M=4.11$ )이 중학교( $M=3.87$ )와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 $M=3.77$ )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교 영재교사들보다 고등학교 영재교사들이 수업 주제 선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준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반면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영재교육 담당자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평균( $M=3.86$ )이 중학교( $M=3.69$ )와 고등학교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 $M=3.68$ )보다 높아 다른 학교급의 영재교사들보다 전문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목에 대한 이러한 학교급별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

과목별 영재교사와 학교급별 영재교사 모두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재교육 전문기관의 연계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확보될 것이다.’의 응답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와 ‘선발된 영재학생들의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이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차에 맞는 학습에 대한 기대는 응답 기준평균 3.0보다 다소 높아 효과에 대한 기대가 보통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학교급별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의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항 목	학교급 <i>M(SD)</i>			<i>F</i>	<i>p</i>
		초	중	고		
환경 측면	영재교육 담당자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다.	3.86(0.47)	3.69(0.73)	3.68(0.75)	0.550	0.579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3.41(0.85)	3.53(0.94)	3.21(1.03)	0.792	0.457
	선발된 영재학생들의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이뤄질 것이다.	3.45(0.96)	3.38(0.91)	3.26(0.73)	0.238	0.789
	영재교육 전문기관의 연계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확보될 것이다.	3.82(1.01)	3.80(0.73)	3.84(0.69)	0.019	0.981
내용 측면	초·중·고의 학교급별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이 해결될 것이다.	4.09(0.68)	3.91(0.63)	4.11(0.46)	0.993	0.375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	3.77(0.97)	3.87(0.87)	4.11(0.66)	0.822	0.443
	인지적 측면 외에 인성, 진로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보 될 것이다.	3.73(0.83)	3.93(0.84)	3.74(0.87)	0.616	0.543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3.82(0.73)	3.84(0.80)	3.95(0.62)	0.175	0.840
	중복되었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것이다.	3.73(0.98)	3.93(0.78)	4.11(0.81)	1.040	0.358

경력별 영재교사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고경력 영재교사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 중 ‘학교급별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의 해결’과 ‘중복되었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평균이 가장 높아 기준 개발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경력 영재교사들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 될 것’에 대한 응답평균( $M=4.00$ )이 중경력( $M=3.85$ )과 고경력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 $M=3.85$ )보다 높아 주제 선정의 어려움 해소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학과 고등학교 영재교사들과 유사하게 저경력 영재교사들이 다른 경력의 영재교사들보다 영재 수업 시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력별 교사들은 ‘영재교육 전문 기관의 연계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확보 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평균이 응답 기준평균 3.0보다 다소 낮아 보통정도의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경력 영재교사들의 응답평균( $M=3.26$ )은 가장 낮았으며 과목별, 학교급별 집단에 비해 효과 기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경력 영재교사들은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 질 것이다’의 항목에 대한 응답평균( $M=3.11$ )은 다른 경력의 영재교사들과 고등학교 영재교사들( $M=3.26$ )보다 가장 낮았으며, 과목별, 학교급별 집단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중경력 영재교사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응답평균( $M=3.88$ )이 고경력( $M=3.70$ )과 저경력( $M=3.58$ )이 가장 높았으며, 과목별, 학교급별 집단에 비해 경제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경력별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의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항 목	경력 $M(SD)$			$F$	$p$
		저경력	중경력	고경력		
환경 측면	영재교육 담당자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다.	3.73(0.78)	3.91(0.80)	3.78(0.80)	0.406	0.668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3.58(0.58)	3.88(0.65)	3.70(0.78)	1.503	0.228
	선발된 영재학생들의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이뤄질 것이다.	3.46(0.86)	3.67(0.85)	3.11(1.05)	2.721	0.072
	영재교육 전문기관의 연계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확보될 것이다.	3.54(0.81)	3.33(0.99)	3.26(0.81)	0.711	0.494
내용 측면	초·중·고의 학교급별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이 해결될 것이다.	3.96(0.60)	3.94(0.70)	4.11(0.51)	0.649	0.525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 될 것이다.	4.00(0.80)	3.85(0.97)	3.85(0.77)	0.275	0.760
	인지적 측면 외에 인성, 진로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보 될 것이다.	3.88(0.77)	3.88(0.82)	3.74(0.94)	0.256	0.774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3.73(0.78)	3.88(0.78)	3.96(0.65)	0.666	0.516
	중복되었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것이다.	3.92(0.89)	3.88(0.89)	3.96(0.76)	0.073	0.930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영재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과목별, 학교급, 경력별 교사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교수-학습 자료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학급의 영재교사들보다 ‘학년 및 학교급간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영재교사들은 ‘지역별 영재 학생의 수준 차이’를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수학과 저경력과 고경력의 영재교사들은 ‘학년 및 학교급간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반면 과학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재교사들과 중경력의 영재교사들은 ‘학년 및 학교급에 맞지 않는 영재교육의 교수-학습 내용’을 세 번째 순으로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영재교사들은 세 번째 순위의 문제점으로 ‘교수-학습 자료부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다

른 학년에 비해 교수·학습 자료가 다소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교수·학습자료의 체계적 개발·보급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였으나, 현장의 영재 담당 교사들은 여전히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자료 개발 후 학교 현장으로까지 보급의 경로를 심층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또한 지역별 영재이동들의 수준 차이와 프로그램의 중복성과 영재교육 내용으로써의 적절성 등이 여전히 영재교육 현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로 제기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둘째,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집단 중 과학, 고등학교, 저경력 영재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74.4%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영재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68.2%)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재교사들은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개발에 대한 필요성 결핍보다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자료 부족과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재교사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영재교육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나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영재교사들이 교육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영재교육의 변화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고경력의 영재교사들이 저경력의 영재교사들에게 영재지도에 대한 노하우와 현장 경험의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연수에 도입하여 연수가 나눔 교육의 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수 역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셋째,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개발 되면 영재교육의 환경적인 측면의 효과보다 내용 측면의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학 영재교사들은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개발 되면 ‘중복되었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것.’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으며, 과목별 영재교사들 모두 ‘초·중·고의 학교급별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이 해결될 것이다’와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수학 영재교사들이 과학 영재교사들 보다 프로그램 기준 개발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고등학교 영재교사들은 다른 학교급의 영재교사들보다 ‘학교급별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의 해결’과 ‘주제선정에 대한 어려움 해소’,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의 중복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의 효과에 대해 기대가 가장 큰 반면 영재교육 환경 측면의 효과 기대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급 교사들의 기대보다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력별 영재교사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고경력 영재교사들

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 중 ‘학교급별 영재교육 연계성 부족의 해결’, ‘중복되었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차별성 있게 운영될 것’,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 질 것’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경력 영재교사들보다 가장 컸으며, 반면 저경력 영재교사들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경력 영재교사들이 수학과 고등학교 영재교사들과 유사하게 다른 경력의 영재교사들보다 영재 수업 시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따라서 영재교사들은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마련된다면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학년 및 학교급간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중복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해 학년 및 학교급 간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 문제점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선발된 영재들의 개인차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영재교육이 처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처방전은 될 수 없지만, 되도록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등 각 영재교육 기관과 각 학교급의 영재교육 현장에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영재교육의 각 영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 연구가 후속적으로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철학과 교육목표,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 학생선발 방법, 교육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조정일 외, 1998)가 필요하며, 영재들의 학습 특성에 대한 이해(한기순, 김희정, 2010)와 (과학)영재들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이해명, 1999)들이 영재교육 영역별로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평가와 평가로부터 우리나라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며, 이때 일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박종원 외, 2000). 이를 통해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으로 학습의 성취 수준, 성취 목표, 학습 내용, 교수-학습 전략, 교사 수준 등 우리나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역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하위 기준(Sub-domain Standards)들이 영재 영역별 학교급별에 따라 마련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가수준의 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이 개발된다면 역량이나 전문성과 같은 교사 변인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영재교육의 질적 형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급별 학년별 프로그램의 중복성의 문제 해결로 교수-학습에 소요되는 시간투자 대비 교육의 질적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본 준거가 되어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 교육인적자원부 (2002).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
- 김미숙, 이정규, 이희권, 김언주, 맹희주, 이상천, 정경아, 최호진, 한수연 (2007).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평가 및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상미 (2014). **초등수학 영재학급의 운영 실태 및 프로그램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소연, 이신동 (2009). 국가수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8(3), 63-88.
- 박경빈, 류지영, 박인호, 방승진, 육근철, 윤여홍, 이미순, 이선영, 이재호, 전미란, 전영석, 조석희, 진석언 공저 (2014). **한눈에 보는 영재교육**. 서울; 학지사
- 박종원, 이종백, 오원근, 박종석 (2000). 과학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연구 I-물리 영역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10(1), 75-104.
- 박후휘 (2014). **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GPS) 체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송인섭, 이신동,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편역 (2001).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학문사.
- 양태연, 한기순, 이정훈, 박인호, 김일 (2013). 영재교육 교재 적합도 및 교육내용 분석. **과학영재교육**, 5(1), 1-14.
- 이미순 (2009). **수월성 지향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NAGC 유아-유치~12학년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에 대한 주석**. 서울: 박학사.
- 이정화 (2008). **초등영재교육 운영기준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희 (2011). **수학 영재 교육프로그램의 초·중등 연계성 및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해명 (1999). 과학영재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영재교육연구**, 9(1), 37-62.
- 정문호 (2008). **과학영재교육원 교육프로그램 평가기준 개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정일, 이종백, 김인수, 박종원, 윤석태, 주동기, 임형석 (1998). 과학영재교육의 목표와 실제-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프로그램. **영재교육연구**, 8(2), 175-190.
- 한기순 (2006). 국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영재와 영재교육**, 5(1), 109-129.
- 한기순, 김희정 (2010).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사고양식과 학습양식 간의 관계 탐색. **영재교육연구**, 20(1), 289-316.
- Maker, C. J. (1982).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Gifted*. Rockville, MD: Aspen



= Abstract =

## A Study on Teachers' Perceptions of the National Standards Gifted Education Program

**Young Ock Kim**

*Hyunam High School*

**Hee Ju Maeng**

*Dankook University*

The gifted Education has been grown up a lot although it has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the quality of the gifted education programs after legislated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during the last ten-year period.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s of the national standards gifted education program and the problems in managing of the gifted education program. Th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analyzed that gifted teachers recognize the lack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regional level difference of the gifted children, Redundancy of program in the grade and school levels in managing of the gifted education as the problems. Second, it was found that perception of most gifted teachers about necess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Gifted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was very positive. Also, it has shown that gifted teachers expect the education with the overlapped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would be managed differently, the difficulty of the topic selection could be resolved, and the quality of the gifted education by the programs development of various aspects would be increased. Especially, gifted teachers expect that the problem from the lack of gifted education continuity of school levels could be resolved b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tandards Gifted Education Program. Therefore, for the improving quality of gifted education with resolving the problem from the Contents Redundancy and the lack of gifted education continuity of school levels, the national standards gifted education program should be studied developed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The National Standards Gifted Education Program,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Gifted education program, Contents Redundancy, continuity of school levels

1차 원고접수: 2015년 9월 18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12월 16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12월 16일